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위헌적 발상

양성평등 남녀 두 성별로 이뤄졌다는 창조질서 정면 위배

700여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갖고 규탄

성평등가족부반대대책위원회는 7월 1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최광희 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전 대표, 주요영 자유인권 실천국민행동 대표가 발언자로 나섰고, 박소영 교육 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헌법 법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개념으로,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난바이너리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확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성별 차별 시정의 차원을 넘어, 가정과 사회, 교육과 법체계에 전반을 뒤흔드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이어 “성평등 개념은 인간이 남녀 두 성별로 이뤄졌다는 자연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성별의 경계를 흐리고 다양한 젠더를 제도화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양성평등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2014년 국회 공청회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성평등 용어가 젠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정책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상의 친족과 상속, 국민건강보험법, 가족관계등록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헌법 법체계를 모두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유지되고 있다”며, “만약 부처 명칭부터 ‘성평등’을 전면으로 내세운다면, 관련 정책과 법률 해석에 혼란이 불가피하며, 국가 법질서 전반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부는 성경적 질서와 헌법 원칙에 반하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기관 명칭에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할 것 ▲향후 모든 법령과 조례는 양성평등 개념에 기반해 제·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평등가족부반대대책위원회에는 동성애·동성



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거룩한방과제통합국민대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복음법률가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바른문화연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 전국 700여 개 시민·교계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성명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와 성별 개념, 더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헌법 법체계에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를 포함하고 있어,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성평등은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난바이너리 등 남녀의 이분법적 성별 개념을 해체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확정되어 사용된다. 이는 단순한 성별 차별 시정의 차원을 넘어, 가정과 사회, 교육과 법체계에 전반을 뒤흔드는 시도이며, 국민 다수의 합의 없이 국가정책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식하려는 위험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남녀 두 성별로 이루어진 자연 질서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 되는 위헌적 개념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평등’은 이 두 성별의 경계를 흐리고, 다양한 젠더를 제도화함으로써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

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할 것인지 논의될 당시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제3의 성, 성적지향 등 젠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정책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 학계, 시민사회는 충분한 논의 끝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본다.

또한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상의 친족과 상속, 국민건강보험법, 가족관계등록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헌법 법체계를 모두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유지되고 있다. 만약 부처 명칭부터 ‘성평등’을 전면으로 내세운다면, 관련 정책과 법률 해석에도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국가 법질서 전반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성경적 질서와 헌법 원칙에 반하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기관 명칭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하나, 향후 모든 법령과 조례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합치되도록 ‘양성평등’ 개념으로 제·개정하길 요청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반대운동과 국민적 저항으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7월 1일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거룩한방과제통합국민대회, 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자평법정책연구소, 국민주권행동,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연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번호사회, 국민주권행동, 복음법률가회, 복음연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GNM연합, 성산생명영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국가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가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기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 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대, 기독교성경맘, 건강한경기도만들기국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바른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700여 개 단체일동



“자유는 희생 위에 세워진다·Freedom is not free”

6·25전쟁과 기적의 가평전투 74주년 기념예배에서 설교 전해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박동호 대표회장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6:25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열린 ‘기적의 가평전투 74주년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전했다. 그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며 대한민국의 자유가 수많은

은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설교의 제목을 ‘희생 위에 세워진 자유’라고 밝히며, 시편 124편 말씀을 인용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했으리라”(시편 124:1)고 고백했다. 그는 가평전투

를 단순한 군사적 전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가 있었던 사건으로 조명했다.

그는 “1951년 4월 벌어진 가평전투에서 영연방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막아내며 결정적인 전과를 올린 ‘기적의 가평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부대와 미군, 한국군이 함께한 연합작전으로, 서울을 방어한 최후의 방어선에

프로포징
은
말씀
은
시대

‘메뚜기인가 밭인가’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밭이라...” (민 13:30-33, 14:6-9)

사람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닌 문제들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대응태도에 따라서 진행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문제를 대하는 신앙적인 사고방식과 대응태도입니다. 민수가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사건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대하는 신앙적 사고방식과 대응태도를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열두 사람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40일간 그 땅의 지형과 거주민 그리고 산물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정탐하고 돌아와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은 그 땅을 탐지한 결과로 불신앙적 견해와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열 정탐꾼의 견해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견해를 대조해 보면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견해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견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열 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의 보기에 도그 같을 것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당장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 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감을 느끼고 밤새도록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외치던 상투적인 말이며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라니”라고 예측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완전히 빛나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여



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였다”면서 “5월에는 미군 213 야전포병대대가 참여해 ‘기적의 가평전투’로 기록될 전투를 치렀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소수의 병력이 중공군의 물량 공세를 막아냈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열세한 상황에서 거둔 승리는 전술이나 무기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참전 규모를 소개하며, 육군 30만 명 이상, 해군 261척의 함대, 공군 전폭기와 전투기가 참전한 사실을 짚었다. 특히 가평전투는 미군 213 야전포병대대의 투혼이 빛난 전투로 기록되며, 4,000명의 중공군과 맞서 싸워 350명을 사살하고 83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전사자 없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유타주 출신의 18~22세 젊은 병사들이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비록 명령을 받고 참전했지만, 그들의 심장은 자유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뛰고 있었다”며,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뒤로한 채 낯선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들의 화성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설교 중 박 목사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친구였고, 그들의 희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도 같은 값은 사랑이었다”며, “이 사랑은 복음의 빛이 이 땅에 심겨진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희생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었고, 대한민국의 심장에 영원히 새겨졌다”며, “그 사랑은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해져야 할 진실이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목사는 가평전투가 전술적 행운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뤄진 기적의 전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열리는 순간 이군의 포격이 정확히 적진을 타격하며 전세를 역전시켰다”며, “이것은 단순한 우연

호수아와 갈렙의 인도아래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한 장판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 불평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안 제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대안을 세우면 자승자박이 되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욕에 속한 정보, 불신앙적 정보를 받아들인 결과로 첫째, 정서적인 혼돈에 빠졌습니다. 둘째,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넷째, 부정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다섯째, 땅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 정탐꾼이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행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행위를 도저히 참고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먼저 가나안에 대한 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밭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의 보호자는 우상이었습니 다. 그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앞에서 사탄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거나 불신하면 자신이 메뚜기같이 열등하게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되며 뒷걸음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면 문제가 밭으로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함께한 장면”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군 213 야전포병대대가 1:16의 전력 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병사들이 신앙적 축복을 받고 파병된 청년들이었다는 점도 덧붙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 마지막에서 박 목사는 전몰 장병의 유족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들의 아들과 남편이 이 땅의 자유를 지켰고,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망언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의 자유, 경제 성장, 민주주의, 교회의 부흥은 모두 그 희생 위에 맺힌 열매”라며,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 진실을 교육하겠다. 우리는 매년 이 자리에서 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설교를 마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다. “Thank you, U.S.A.” “Thank you, brave soldiers.” “Thank you, families.” “And above all, thank you, Lord.” “이 피와 사랑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동성동반자 피부양자 인정한 김상환 헌법재판관 후보 결정 재고하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분명한 것은 성평등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동성애 등 성적지향의 부분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단호히 반대한다. 2021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표현의 모호함을 애고, 양성평등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에는 여성과 남성, 오직 두 개의 성만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울시도 조례에서 '성평등'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했다. 헌법 제36조 1항에는 '양성의 평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성평등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일관되게 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김 전 대법관은 과거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판결에서 '소설'을 인용하며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사건과 연민의 감정으로 판결한 우를 범한 바 있다. 임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범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 어떤 판결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김 전 대법관의 현재 후보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시기상조라는 입

법부 판단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무산됐다. 그럼에도 행정부와 사법부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쟁수로 동성애, 동성혼 등을 조장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행동에 대한 문제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비판할 수 없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며, 학교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자유가 아닌 방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할 수 없으며, 만일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공의는 무너진다.

2025년 6월 2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제75주년 6.25 상기 연합예배...오직 평화

(사)개교협 · (사)기개협 · (사)세개연 공동주최로



양정섭 목사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이하 개교협)는 지난 6월 23일(월) 종로5가 여전도회관 루이스 기념관에서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구단협의회(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이하 기개협), (사)세계개혁신구교회연합회(총재 김권연 목사/이하 세계연)와 연합하여 전국의 가임교단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5회 6.25 상기 연합예배를 드렸다.

연합예배는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이승권 목사(예장 합동개혁 총회장)의 대표기도, 개혁총장단의 특별찬양, 개교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렬 목사는 겔 37:1~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은혜 언약의 평화'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의 대한민국 상황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가져다주는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오직 평화"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비비 이단을 배격하고 개혁 신학, 개혁 신앙으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당부했다.

예배는 계속해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허윤준 목사(예장 개혁교회 총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진산 목사(예장 개혁교회 감사)가 '사단법인 3개 단체와 회원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를 드렸다.

한국기독언론협, 'AI 세미나' 개최

심하보 목사, '가짜 편집과 좌편향 언론'에 일침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노근재 목사)는 지난 6월 27일(금) 서울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에서 'AI(Artificial Intelligence)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전한 심하보 목사(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언론은 진실의 무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보수 언론과 기독교

언론의 정체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심 목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 대부분은 더이상 언론이 아니다. 홍보 기관에 불과하다"라며, "좌파 세력이 10명만 모여도 대서특필되는데, 기독교인 10만 명이 모여도 보도조차 안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당시 우리 교회 예배 장면을

왜곡 편집해 방영한 사례를 보며, 언론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라며, "가짜 편집, 사실 왜곡, 프레임 조작이 한국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심 목사는 외교와 안보, 역사 왜곡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친일은 그렇게 비난하면서 친중은 왜 침묵하느냐"라며, "6·25전쟁에서 미국이 흘린 피와 땀을 잊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는 미국과 유엔군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좌편향된 이슈는 앞다투어 보도하는게 현실"이라며, "AI 시대일수록 더욱 진실한 언론의 책임이 절실하다"라고 피력했다.

성서공회, 미얀마 '자이와어 성경' 성경 기증

진남제일교회 · 하늘꿈교회 등 4곳 후원으로 4,998부 보내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선균 목사)는 지난 6월 26일, 진남제일교회(김대영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김중훈 장로(산곡교회), 하늘꿈교회(신용대 목사)의 후원으로 번역된 '자이와어 성경' 4,998부를 미얀마에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진남제일교회 우종철 은퇴 목사는 "오늘 자이와어 성경책을 본 부족들이 이 말씀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면 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몸과 영혼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자이와 부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했다.

미얀마성서공회 사무엘 아예 라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자이와 부족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완성되고 출판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쁨을 나눴다.

공회 호재민 총무는 "자이와 부족의 복음화율은 상당히 낮지만, 이 성경이 전해지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이와 부족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굳건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통한 복음의 확산과 변화를 기대했다.

미얀마 북부 카친(Kachin)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와(Zaiwa) 부족은 인구 약 10만 명의 소수 부족으로, 악령 숭배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자이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성결대학교 관광학과, 대학생 공모전 '최우수상'

APEC 시대 관광전략 제안... ESG 대응 주제로

성결대학교(www.sungkyul.ac.kr, 총장: 정희석) 관광학과가 한국관광학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24 경북·경주 국제학술대회'의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오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APEC 시대의 지역관광: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경주에서 열렸다. 관광산업과 학계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결대학교 관광학과 재학생 오세연, 마지윤, 정은서, 최가삼 팀은 "기후위기 시대 관광산업의 ESG 대응 전략과 해법"을 주제

로 탁월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GKL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팀을 지도한 김경배 교수는 우수지도교수상을 수상하며 학생들의 성과에 학문적 뒷받침을 더했다.

김경배 관광학과장은 "관광 분야에서 가

장 권위 있는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학생들의 성실한 연구와 열정이 빛을 발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성결대학교 관광학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기총-잠실삼성안과, 의료 협약

목회자 · 성도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사)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6월 25일(수)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삼성안과(대표원장 김병진)와 지정병원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기총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은 잠실삼성안과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기총은 잠실삼성안과를 진료 지정병원으로 지정하고,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협약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기총의 임직원 및 회원, 직계 가족은 잠실삼성안과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기총 소속의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잠실삼성안과의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잠실삼성안과 김병진 대표원장은 "사단법인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눈으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더 밝고 편한 눈을 되찾아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한동대, 파푸아뉴기니에서 '차세대 기업가정신 훈련'

디바인위드대와 협력, 4박 5일 현지 대학생 50명 참여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파푸아뉴기니 마담에서 디바인위드대학교(DWU)와 협력해 '2025 파푸아뉴기니 차세대 기업가정신훈련(NGET)'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성현모 교수와 이해규 교수, 파푸아뉴기니대학교 Kamuna Kipa 강사가 참여해 현지 대학 교원과 학생 약 50명을 대상으로 집중적 기업가정신 교육을 하고 있다.

4박 5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경영·창

업 기초부터 비즈니스 모델 설계, 현지 스타트업 사례 분석, 재무 전략까지 실무 중심의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팀을 구성해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을 직접 기획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한동대 및 현지 대학 심사위원단 앞에서 각 팀이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며 상호 경쟁하는 실습 활동을 펼쳤다.

성현모 교수는 개회사에서 "개발도상국에 희망을 전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기업가정신"이라며 "이번 NGET를 통해 파푸아뉴기니 참가자들이 모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차세대 기업가이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 생명의 말씀 1



정 석 현 목사

- 경기남지방회 전임지방회장
- 순복음평강교회 담임

우리의 인생은 만남으로 출발하며,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시작되고, 형성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만남의 복이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 1) 부모와의 만남
-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가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 2) 스승과의 만남
- 좋은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을 통하여 학문과

지식과 교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헬렌켈러는 태어나서 2살도 안되어 앞을 못보고, 듣지 못하며, 말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철들 때쯤 비관과 낙심으로 절망의 삶을 살다가 설리반이라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설리반은 헬렌켈러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며 평생의 반려자가 되었으며, 훗날 그녀가 하버드대학을 졸업할 때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 의 나도 없었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 다. 헬렌켈러는 오늘날 수많은 장애아들에 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 3) 친구와의 만남
-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서 부자집 소년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한 가난한 소년이 물에 들어가 그 소년 을 구해주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건져준 소년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소년은 나는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라 고 했습니다. 덕분에 이 소년은 런던에서 의학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프레밍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플레밍은 그

- 부자집 친구가 폐렴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발견한 페니실린을 들고 가서 그 친구를 구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다윗을 사랑하고 친구로 대해주었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 할 때 위기에서 구해주 기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정은 다윗 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브비보셋을 왕자의 신분으로 세워서 아버지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갚았습니다(삼상 9:11).
- 4) 예수그리스도와와의 만남
-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는 것은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귀한 만남 입니다. 하나님은 120여 년 전에 이 민족을 사랑 하셔서 아편켈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 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이 땅 어두움에 잠들어 있 던 이 민족을 깨웠으며, 이 민족은 깊은 어둠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 루게 하였고,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 하는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 가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고, 또 하나는 진주를 구하려 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나 진주는 천국 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 나는 천국은 부지런히 일하고, 구하려 다닐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 한 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의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를 위해 열심을 갖고 일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 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이 보화나 진주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산 것 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분의 헌신, 충성,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 팔았다는 말씀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 놓고, 나를 깨뜨려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얼 깨뜨립니까? 나 의 교만, 탐욕,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자신의

힘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 다가 아무 능력도, 힘도 쓸 수 없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 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할 때는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실패하든, 넘어지든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습니다. 너 방법대로 네 맘대로 해보라는 것입니 다.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 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 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변 화되고 영생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방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 헤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에 있는 것 입니다. 값진 보화와 진주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분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 리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

바른 성윤리 회복 특강 김지연



예장 통합 총회 산하 동성대책위원회 (제109회기 위원장 명대준 목사)는 지난 6월 26일 저녁 여천교회(담임 정훈 목사)에서 '2025 동성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른 성윤리 회복을 목적으로 '창조적 성질서, 거룩한 사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주강사인 김지연 박사(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특임교수)는 차별금지법 관련 바른대처를 강조했다.

신성모독 23년 만에 무죄 판결



파키스탄 대법원이 최근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72세의 기독교인에게 2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신성모독과 같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기독교화선교회 임원진 추대



(사)기독교화선교회(이사장 김숙희 목사, 대표회장 강형규 목사, 대표 서정형·사진)는 설립 21주년을 맞이해 임원진 및 회원들을 추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정형 대표는 "올해 21주년을 맞아 국내 문화선교 사역을 위해 회원 및 후원이사를 추대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다.

최영주 아나운서 월드비전 홍보대사



최영주 SBS 아나운서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6월 30일 월드비전 본부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최영주 SBS 아나운서는 월드비전의 오랜 후원자로, 1991년 박성원 전선대사와 함께 SBS '희망TV' 기아제원24' 공동 MC로 참여하며 국내외 취약아동을 위한 지원 활동에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방송법 개정이 정치적 중립인가? 악법인가?

2일, 국회 과학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소위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를 겨냥한 것이다. 현행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 국회 추천은 물론,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회, 법조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도 공영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YTN, 연합뉴스TV)의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직권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장

을 임명할 때도 새롭게 구성된 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통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객관적으로 방송의 지배구조를 현 정권과 노선을 같이하는 노조와 그 세력들이 방송을 지배하도록 하는 구조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한국의 공영방송은 일반적으로 치우친 이념과 사고(思考)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방송을 현 정부와 여당이 영구적으로 차지하며,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을 강행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벌써 세 번째인데, 이미 두 차례는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방송3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송3법 개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진영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나 노조가 다수를 점하는 이 사회의 지배구조로는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 다양한 의견이라며, 공영방송의 조직과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잘못 나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과 객관성과 진정성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된 시대를 켜고, 국민

참여로 방송이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진심인가?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다양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편향과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힘을 얻는다고 본다. 어느 권력이든 언론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치의 개입 차단을 막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독립과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가? 이를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식의 방송법 개정으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괴리감(乖離感)만 더할 뿐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방송 길들이기'를 위한 입법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랑하고, 인정할 만한 방송이 되는 길을 보장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수의 권력으로써, 억지로 방송법을 바꾸려는 태도는 오히려 방송을 망치려는 책동으로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다. 이것이 잘못된 판단인가? 지금은 방송법 개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거대 여당의 노력이 훨씬 중요하고 필요하다. 정치권이 방송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억지를 부릴 때, 방송의 순기능은 죽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방송을 아예 빼앗아가는 악법이 될 것이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구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교회를 통해 이루실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 전해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김은수 목사)는 지난 6월 27일(목) 오전 11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에 위치한 한알의밀알교회(담임 신홍섭 목사)에서 6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하고 교단과 지방회, 교회를 위해 회원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경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성기찬 목사(망어진순복음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모의 찬양단의 특송, 전임회장 최용은 목사(순복음반석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요 2:1-11 말씀을 본문으로 '가나 혼인잔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전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합심기도 시간에는 말씀의 열매를 위해,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지방회 모든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황용식 목사(연양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전인회장 윤득주 목사(옥토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서는 지방회장 김은수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의 주요 안건을 공유하고,

각각 보고를 맡아 지방회 운영과 사역 상황을 나누었다. 이어서 회무와 광고를 통해 향후 사역 방향을 살펴보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월례회를 통해 영남동지방회 소속 교회들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역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고, 목회자 간의 유대와 연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작은 미약하나 크게 쓰임받는 중 되길”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6월 28일(토) 오전 11시 순복음세계로교회(담임 이정수 전도사)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창립예배는 김은숙 목사의 찬양인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총무 김진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어 서성영 목사의 대표기도, 김진태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 사모들과 이후동 장로의 은혜로운 특송, 지방회 부회장 서경오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마 15:22-28 말씀을 본문으로 '부스라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가나안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한 여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역설했다.



이어 “이정수 전도사도 이 여인의 믿음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후에는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말씀 후에는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교회 창립 및 담임 취임 공포, 정성현 목사의 권면, 김남수 목사의 축사, 김미연 목사의 헌금기도, 이해정 사모의 헌금 특송, 이정수 전도사의 인사말, 서경오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예배 후에는 순복음세계로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교제를 나누었으며, 인근 카페에서도 담소를 이어가며 교회 창립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뒤 각자 사역지로 돌아갔다.

이번 예배는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복음세계로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것을 기대하게 했다.

“이미 우리에게겐 소망이 있습니다”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진원 목사)는 지난 6월 26일(목) 오전 11시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1025번길 29-3에 위치한 예수이름교회(담임 김진원 목사)에서 6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 교단과 교회

를 위해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예수이름교회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 후 지방회 총무 이나건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최월성 목사(예수기쁨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 서기 김연자 목사(로템나무교회)의 성경봉독, 서범근 목사(진주순복음교회)의 특송, 지방회장 김진원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뱀전 1:1-6 말씀을 본문으로 '이미 우리에게겐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능력의 소망이 있다”고 강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완전한 특권이며, 우리가 발견해야 할 축복”이라며 말씀을 마무리했다.

설교 이후에는 전임회장에게 신임회장으로로부터 감사패가 전달되었고, 이어 전임회장이 신임회장에게 의사봉을 인계하며 지방회의 아름다운 이·취임 절차가 진행되었다.

반인홍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2부 회무처리가 이어졌으며, 회의를 마친 후에는 아크식당에서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월례회는 말씀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새롭게 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가 더욱 힘있게 사역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성평등가족부를 반대합니다”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모임은 지난 7월 7일(월) 오후 국회소통과 기자회견장에서 윤상현 국회의원실 주최로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성평등은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전하고 성평등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학부모들은 성평등가족부를 반대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 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먼저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기관 및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남녀 간의 생물학적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평등은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

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용어의 개념적 차이를 알아보면 ‘양성평등’은 헌법 제36조와 제11조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간의 법적·사회적 평등을 뜻합니다. 반면 ‘성평등’은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젠더이분법을 부정하고 성적 다양성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둘째, 정책적 혼란과 헌법 위배가 우려됩니다.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성평등’이 제3의 성을 포함하므로, 헌법에 명시된 ‘양성’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셋째, 의학·보건적 문제점입니다. WHO, CDC 등 국제보건기구들은 남성 간 성행위가 간염(A형), 이질, 항문암, 대장균 감염, 임질, 에이즈 등 다양한 감염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 역시 에이즈 예방 정책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핵심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 추세와의 차이입니다. 유엔과 일부 서구국가는 ‘성평등’을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법률과 사회문화적 현실에 부

합하지 않으며, 정책 도입 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대와 우려입니다. 성평등 정책은 동성결혼 및 성전환자의 법적 인정, 교육현장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평등’은 단순히 평등의 확대 개념이 아니라 동성애·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용어로 기능하며, 헌법상 양성 개념과 충돌하고 공중보건, 교육, 법제도 영역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별·혼인·가족제도가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과 확대·개편 추진을 즉시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 07. 07.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모임, J-edu 전담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언론, 악의적으로 기독교 보도”

심하보 목사, ‘좌편향’에 일침…기독교언론 사명 강조



심하보 목사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담임)가 지난 6월 27일(금)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언론협회(회장 노곤채 목사)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언론은 진실의 무기를 회복해야 한다”며 보수 언론과 기독교 언론의 정체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심 목사는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 대부분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홍보 기관에 불과하다”며 “좌파 세력이 10명만 모여도 대서특필되는데, 기독교인 10만 명이 모여도 보도조차 안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당시 우리 교회 예배 장면을 외국 편집해 방영한 사례를 보며, 언론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가짜 편집, 사실 왜곡, 프레임 조작이 한국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목사는 외교와 안보, 역사 외교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친일은 그렇게 비난하면서 친중은 왜 침묵하느냐”며 “6·25전쟁에서 미국이 흘린 피와 땀을 잊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는 미국과 유엔군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의 정체성을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좌편향된 이슈는 앞다퉈 보도하는 게 현실”이라며 “AI 시대일수록 더욱 진실한 언론의 책임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국전쟁 참전 후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6·25전쟁 영웅 ‘윌리엄 웨버 예비역 육군 대령’을 찾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그는 여전히 태극기를 거실에 걸어 놓고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팔과 다리를



던져놓고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왜 친중친북을 하는지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나보다 더 사랑한 그분을 잊을 수가 없다”며 “그동안 기독교인인들의 수고도 많았지만 제대로 된 언론의 사명을 감당해 이 시대를 진실로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식상한 뉴스 대신 누군가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언론으로 만들어 달라. 하나님과 민족 앞에 진실된 언론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정론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독교원로목사회 임원 워크숍 및 감사예배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 다짐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이하 한기원)는 지난 6월 24일(화) 엘림교회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사역”이라는 주제로 제2대 임원 워크숍 및 감사예배를 진행했다. 1부 순서는 오후 1시 30분, 주항기 목사의 찬양인도로 막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찬송가 323장(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을 함께 부르며 마음을 모았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이어진 2부 감사예배는 사무총장 이선규 목사의 인도로 여성처장 채인숙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처장 황금애 교수의 말씀 봉독, 김성만 목사의 설교, 여성회원 일동의 특송, 주항기 목사의 봉헌찬송, 총무국장 최홍일 목사의 봉헌기도, 한기원 부흥 발전을 위한 합심기도, 대표회장 송용



필 목사의 축도 순으로 드렸다.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성만 목사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총 5번의 지상명령을 내리셨다. 처음 두 번은 예루살렘에서, 이

후 한 번은 갈릴리에서, 다시 두 번은 예루살렘에서 내리셨다. 그리고 ‘너희들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사역지 삼아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목양시평

아동 대상 그루밍 범죄 미화 중지해야

상업목적의 아동 인권 침해는 범죄이다

지난 7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성명을 냈다. 여교사와 초등학생 간의 사랑을 그린 웹툰 만화를 드라마로 만들려는 것에 대해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교사(教師)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현직 교사 가운데 모든 면에서 미성숙한 제자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 목적과 가치와도 한참 동

떨어진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 대중들에게 알린다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이다. 이는 창작과 그 독창성이라는 명분으로도 대체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한 시도들이 곧 범죄나 그 범죄의 미화로 전화할 수 있고, 아동들에 대한 그루밍(성 착취, 성 갈취, 성적 지배관계 형성 등)을 조장하거나 옹호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교총의 성명대로 해당 드라마의 소재는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를 무너트림으로, 교육 근간을 흔드는 나쁜 행위가 될 것이다. 다행히 그러한 계획들이 모두 무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른들이 상업목적으로, 자라나는 세대의 인권 침해와 범죄를 조장하는 것은 어떤 범죄 행위 못지않게 무겁다고 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의하여 길러지고, 성장한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가르침과 교육 목표가 비뚤어지면, 잘못 교정(矯正)된 나루처럼 평생을 구부러지게 살 수도 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지겠는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5. 8. 29(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 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 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5. 9. 11(목) 오후 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5. 9. 25(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5. 8. 29(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 사 고 시 : ① 일시: 2026. 2. 2(월)~3(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 3층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은 1996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엄하석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스포츠선교회 탁구선교회 2025년 7월 모임

교단산하 스포츠선교회 탁구선교회에서는 건강한 생활체육 탁구를 통해 건강증진과 함께 복음전파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고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7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 일시 : 2025년 7월 2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림벤엘교회(담임 조선남 목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379

총무 : 기호선 목사
서기 : 문찬우 목사
회계 : 이반석 목사

참여문의 010-5145-3816

민음의 교제와 체력단련으로 함께 하실 동역자님을 기다립니다.
※초보자 레슨 환영합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 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

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 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 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소망교회

개척사명을 가진 목사님을 후임 목회자로 초빙합니다

- 표어:십자가 구원의 복 누리는 것(요 19:30)
- 목표: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마 25:23)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당촌길 69-2(죽리 377) 031-674-6745 010-3947-2224 담임목사 강희문

살롱나비 /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에 관하여

“나토 회의 불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란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는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을 결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李大통령을 대리하여 참여하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캐나다 G7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우의를 보이곤 하였던 행보와는 다른 대통령의 소극적 행보다. G7에서 불발된 미국 트럼프와의 회담이 재추진되었으나 나토회의 불참으로 트럼프와 회담이 불발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 분야 지출에 쓸 것을 압박하고, 6월 21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까지 이뤄진 상황이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나토 회담 참가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며 주요7개국(G7)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민주당 내 자주파 주장이 현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나토 불참으로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한 중동 리스크 속에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뜻의 경중안미라는 실리적인 외교 노선으로 되돌아간 것에 대하여 일관성의 결여요, 중국, 러시아, 북한에 부정적 시각을 줄 것이며, 미국 등 나토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 외교의 비밀관성 인상을 줄 것이다.

살롱나비는 이재명의 나토 회의 불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발표한다.

1. 나토 회의는 32개국 서방 자유진영 국가의 모임으로 중요한 안보모임체이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北大西洋條約機構,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Organisation du Traité de l'Atlantique Nord), 약칭 NATO는 냉전이 시작된 1949년, 집단 안전 보장 조약인 북대서양조약에 의거하여 창립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집단 방위 조약 기구이다.

1949년 미국의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12개 나라가 서명하며 시작되어 현재는 32개국이 가입되어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군사동맹이다.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동맹국 전체의 공격으로 보고 군사적 공동대응을 한다는 집단방위 조약이 나토 존재 이유의 핵심이다.

나토는 최근에는 안보동맹을 넘어서 첨단 기술 공급망 동맹체로 발전하고 있다.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는 나토의 인도 태평양 파트너로서 세계적인 혼란,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3개의 전쟁,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협력 강화라는 시기에 형성된 임시 연합(adhoc coalitions)의 좋은 사례이다.

IP4에 속한 일본·호주·뉴질랜드 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유사 입장국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을 계기로 최근 몇 년 간 각계 각급에서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 나토 회의시 트럼프의 IP4 정상과의 회담 요청이 선포되지 못한 것은 실용

라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체코에 원전 수출과 더불어 폴란드에 K9 자주포, K2 전차 등 각종 방산 무기 등을 나토 회원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 것이었다.

3. 지난 정부는 3년간 나토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알렸다.

나토는 2022년 이후 매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을 초청하였고,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때 이른바 '인도-태평양 4국(IP4)'의 일원으로 초청을 받아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했다.

한국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대표되는 한·미·일 협력을 제외하면 쿼드(QUAD)·오

속 국제 사회는 “나토의 순간이 왔다”(파이낸셜타임스)며 이번 회의를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은 불참”이라는 악수(惡手)를 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은 이 대통령이 반복해서 강조해 온 ‘굳건한 한미 동맹’이란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상회담 가능성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지만, 다른 나라 정상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100%를 보장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5. 노무현의 균형 외교의 교훈, 전작권 환수 등은 국익에 이롭지 않다.

2022년 유세 현장에서 한 블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관련한 이재명의 “정치 초보가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해

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특별한 견제 발표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32개국 정상들의 모임에 참가하여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마케팅과 개인적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 한국 대통령은 이제 보다 높은 외교적 안목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6. 관세정책 등으로 통상현황이 산적한데 이를 돌파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15% 유예 기간(협상 마감 7월 8일)은 다가오는데 한미 정상 간 상견례가 될 첫 양자(兩者) 회담이 계속 밀리고 있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나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건 중대한 전략적인 오류다.

한국이 '민주주의 무기교'로서의 역할을

이건 등이 나토와 IP4의 협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과 인-태 지역 간 안보 협력이 둔화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맹과의 협력·정보 공유를 가속화해야 한다.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유사시 한국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유엔군사령부(UNC) 회원국으로서 전략적 불확실성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나토 정상회의에李大통령 대리 참석 및 트럼프와의 짧은 만남은 산적한 외교 문제 해결 및 한국 새 정부의 국가적 정체성을 보여하기에 역부족이 아닌가? 다행히 일본 총리와 호주 총리도 참가하지 않고 대리 참가자를 보냈으니 한국의 외교적 고립은 덜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6.25 전쟁으로 인해 유엔과 서방 국가의 안보 지원을 받은 나라로서 보다 나토에의 적극적인 참가와 관심 표명, 협력 이행이 요청된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는 당시 중공과 소련으로 한국 전쟁을 배후에서 유발 침략한 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8.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자유 우방국가들의 편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의 기본이 되고 한국이 나토 회원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유엔과 나토 등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6.25 참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자유 대한과 세계의 선진 경제대국에 오른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강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 경계하고 해양 국가인 미국과 서방 자유우방국가와의 협력이 우리의 살길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건국 지도자들이 1948년 제헌국회에서 신앙과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다. 신앙, 정의, 공평과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시 144:15).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시 145:13)

2025년 6월 30일

살롱을 꾸민 나비행동

정주국제학교, 2025년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개최

“중국 3대 명문대 응시자 전원 합격, 신앙과 인성·실력 갖춘 인재 양성 주력”

중국 정주국제학교(이사장 이후진·교장 이수아)는 지난 7월 5일(토) 오후, 경기도 수원 온사랑교회 비전센터에서 2025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졸업생 가운데 응시자 전원인 중국의 3대 명문대학인 북경대, 칭화대, 복단대에 합격한 성과를 토대로, 학부모들과 예비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아울러 재학생들을 기독교신앙으로 인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교육이 함께 하며 수시로 학생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기도

함으로써 지도하고 있음에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에 참석자들은 신뢰를 가졌다.

설명회는 배우 한인수 홍보대사의 축사와 이수아 교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장학회 서병우 회장과 학부모원회 박호인 회장의 인사말, 졸업생 오승업·김두진 동문과 재학생 정성현 학생, 신명식 교사 및 학부모들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배우 한인수 홍보대사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직접 학교를 방문해 강당과 강의실 등 교육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인성

교육에 집중하며, 졸업생 모두가 명문대에 진학한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 직접 방문해보시길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수아 교장은 “정주국제학교는 학생 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존중하며, 인성과 영성, 국제적 감각까지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체적으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안정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이러진 학부모들의 발표에서는 학교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동이 전달됐다. 서병우 장학회 회장은 “우리 자녀는 정주국제학교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적·영적 성장을 이루며 복단대에 입학했다”며 “졸업 후에도 학교와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인 학부모원회 회장은 “첫째 아이의 긍정적인 성장 덕분에 둘째도 입학시켰다”며 “학부모들도 한마음으로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큰 울림을 주었다. 칭화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해

양경찰 특기반 근무 후 해외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7회 졸업생 오승업 동문은 “중국어를 전혀 모르고 입학했지만 커리큘럼 덕분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중국 유학의 취업과 직장생활에서 큰 경쟁력이 된다”고 전했다.

복단대 재학 중인 14회 졸업생 김두진 동문은 “유학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도전의 기회였다”며 “정주국제학교는 창의성을 개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학생인 정성현 학생은 “선생님들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단기간에 중국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입학 후 10개월 만에 HSK 5급에 합격했다. 더 빨리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천연합신문 임경래 기자는 지난 졸업식 취재 후 “질서 정연한 교정과 학생들을 향한 배려가 인상적이었다”며 “중국 공산당 관계자가 졸업식에 참석해 한국 학생들을 격려하는 모습도 감동적이었다”고 전했다.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후진 이사장은 “이번 졸업생 중 응시자 전원인 북경대, 칭화



대, 복단대에 합격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학생들을 가족처럼 돌보며, 장학회와 학부모후원회와 함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코로나 이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졸업 시까지 30% 장학금을 제공하고, 중국어 및 영어 자격증 합격 시 추가 장학금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집중적인 언어 및 수학 교육을 통해 원하는 대학 진학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 후에는 참석 학부모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학교생활, 유학 준비, 장학제도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정주국제학교는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신입생 및 전학생을 모집 중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932-2004로 가능하다.

2025
정주국제학교 (중국대학)
입시결과

대학명	성명 (영문)	전망
칭화대학교	김승후 KIM SELUNGHOO	경제학
북경대학교	박예령 PARK YEAREONG	임상관리
복단대학교	김민 KIM MIN	신문방송
	이우성 LEE WOOSUNG	국제정치
	강재윤 KANG JAEYUN	국제정치
	박경환 PARK KYEONGHAN	여행관리
	최아연 CHOI AYON	애용관리
	강형곤 KANG HYEONGGON	역사학
광둥대학교	오정민 OH JEONGMIN	대외한예상업
	박경환 PARK KYEONGHAN	국제무역
인민대학교	최아연 CHOI AYON	영문학
	김승후 KIM SELUNGHOO	경제학
북경사범대학교	강형곤 KANG HYEONGGON	역사학
	오정민 OH JEONGMIN	광고학

2025년 정주국제학교 입시인 학생들의
중국 명문대학 전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14회 졸업생이 7회 입학식 | 중국 명문대학



광복 80주년 2025 8·15런 기부마라톤

독립유공자 후손 위해 한국해비타트와 ‘8·15km런’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가수 션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마라톤 ‘2025 815런’을 개최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19,450명(오프라인 4,000명, 버추얼 15,450명)의 ‘815 러너’를 모집한다. 참가비 전액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815런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국해비타트 캠페인으로, 2020년부터 올해로 6번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3만 1천여 명의 러너가 참여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197명에 보금자리를 헌정, 현재 20~22호 정도 짓고 있다. 815런 캠페인 홍보대사 가수 션은 올해도 광복절 새벽 마라톤 거리의 2배에 달하는 81.5km를 달리는 마라톤을 완주할 예정이다.

매년 달리기를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몸소 실천해온 션은 “81.5km 마라톤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투사들에게 드리는 감사편지”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6·25 당시 UN군 의료지원국 파병 감사

신한대, 지역의 역사와 인문·문화 이야기를 직접 걷고 체험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와 신한대인문도시지원사업단(단장 최에스터 교수, KBSI연구소장)은 2025년 인문체험 프로그램 ‘걸으면서 음미하는 마을이야기(이하 걸음마)’의 여덟 번째 행사를 6월 28일 의정부 금오동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걸음마는 지역의 역사와 인문·문화 이야기를 직접 걷고 체험하며 배우는 현장형 강의로, 3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의정부시 각 동을 순회 중이다. 지금까지 함께 참여한 지역민은 90여 명에 달하며, 이번 8회차 행사에는 장맛비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31명이 함께했다.

자일동(自旋洞)과 금오동(金梧洞)의 2개 법정동을 관찰하고 있는 행정동인 자금동은 천보산을 뒤로 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6·25 당시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다. 그 때

문에 캠프 에세이온, 캠프 카일, 캠프 시어즈, 2군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모두 폐쇄되고 빈터만 남아 있다.

천보산 자락에 있는 의순공주 묘를 찾은 참가자들은 허스름한 묘 앞에서 굴곡진 삶을 살다 한 맺힌 죽음을 맞이한 공주의 닳은 기념했다. 또한 선조(宣祖)의 후손들 인성군, 능성군, 능창군의 묘를 찾아 조선 왕실의 숨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상록 근린공원으로 이동하여 6·25전쟁 당시 UN군 의료지원국이었던 노르웨이 파병부대의 활동을 기리는 기념비를 방문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노르웨이 외에 스웨덴, 인도, 덴마크, 이탈리아에서도 전쟁 부상자들의 치료를 위해 아낌없는 의료를 지원했다는 사실에 참석자들은 마음오나마 깊은 감사를 전했다.

행사를 이끈 최에스터 사업단장은 “걸음마는 지역의 숨은 이야기와 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공동체 회복과 지역 애착심을 높이고, 사라져가는 자원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의정부문화원(원장 윤성현)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역사 해설은 유호명(경동대학교 대외협력실장) 향토사학자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강의 자료는 의정부문화원 박정근 국장이 제공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여명의 돛(구국애가)

태양의 기상 여명이 밝아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 따라 마음의 동토 신록의 바다에 이르렀네. 아 찬란한 숨결이여, 천상의 비경인가. 인생의 순례자여 하늘을 보고 땅을 보라. 절망의 궤선여 빛 앞에 굴복하라.

하늘의 보좌시여, 아들의 잠을 깨우소서. 불타는 태양의 용기로 밤하늘을 노래하는 은빛 달의 투지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소서. 가식으로 가득찬 이 세대에 불의의 전성시대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들이여 양심의 외치는 태고의 소리를 경청하라. 아 양심의 맥박이여 일어서라. 진실의 강이여 절망의 숲 넘어 희망의 포구로 인도하라. 진실의 강이여, 희망의 포구로 인도하라.

필리핀 유엔참전용사 기념예배 및 위로회를 마닐라 경찰청에서 개최했다. 7·8년 전 북쪽에 경찰서장으로 무궁화 세 개였는데 지금은 쓰리스타가 되어 마닐라 경찰청장으로 부근에 근무하고 계셔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경찰청에서 문화행사 교류가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주 목사가 설교도 하고 경찰청에서 큰상도 받았다.

이번에 필리핀 유엔참전용사 기념예배 때에는 가족

세트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 외 25명을 모시고 갔는데 DOOR OF FAITH CHRISTIAN교회 지녀 대집회 박영수 목사가 감사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행사는 은혜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

경찰청 내외에서 만나는 경찰들을 박영수 목사와 함께 영접기도와 축복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 앞에서 경찰기동대가 인도했다.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경찰관이 다른 분과 교대할 때 고백하는 말은 몸이 아팠는데 박영수 목사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 받은 그 경찰이 안 아프다고 고백하며 얼굴빛이 환해졌다. 다 나왔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린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아멘!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다시 사는 세상, 함께 나누는 생명’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 제23회 사랑의대음악회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지난 6월 14일(토)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23회 사랑의대음악회 ‘다시 사는 세상, 함께 나누는 생명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사랑의대음악회는 군산을 대표하는 생명나눔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해마다 시민과 함께 감동을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생전에 장기기증을 실천한 기증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지역을 대표하는 전북지부 홍보대사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사랑의대음악회’의 1부는 참석 내빈의 인사말과 축사, 우수 봉사자 표창장 시상 및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본 행사에 앞서 전북지부 홍보대사 전북특별자치도 김광영 도지사와 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도내에만 3천여 명의 장기기증 대



기자가 있지만, 막연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생명나눔 운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랑의 대음악회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전환과 참여율을 증대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윤영환 비전대학교 교수(교육 분야),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의료 분야), 채인석 결과정 대표(사회 분야)는 홍보대사로 새롭게 이름을 올리며 전북지역의 생

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합창단 아리올의 무대로 문을 열었다. 장기기증 운동의 주제가인 「새 생명 참 사랑」을 시작으로 「보리밭」,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 「꽃에게」 등 감성적인 곡들이 이어졌고,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성결대 미래 목회자 양성 응원

성결대총장장학후원회로부터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전달받아

성결대학교(www.sungkyul.ac.kr, 총장: 정희석)가 6월 24일(화) 성결대 학술정보관 6층 아담 국제회의실에서 성결대총장장학후원회(회장 노윤식 목사)로부터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23,353,000원을 전달받았다.

성결대총장장학후원회는 6월 정기에배에서 성결대 제10대 정희석 총장의 취임을 환영하고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미래 목회자 양성을 응원하는 뜻을 담아 이번 장학기금을 전달

했다.

정희석 총장은 환영사에서 “장학기금은 신학대학원 신인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 목회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며, “성결대총장장학후원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신앙과 학문이 조화를 이루는 기독교대학으로서, 다음 세대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총장장학후원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성결대총장장학후원회는 2022년 4월 설립되어,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원로 및 현직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의 신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회장 노윤식 목사와 함께 김재용·박상규·노태철·강의구·고용복·엄호섭·김영수 목사 등이 명예회장으로, 객종원 목사가 전임회장으로 참여하며, 기도과 장학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철함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해진 것은 고철함에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응축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37,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302-1777-9898-51 농협은행 김영국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22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민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정직한 역사기록은 '기독교 없이 자유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말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기독교 없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한국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으로 국권이 피탈된 조선은 왕조의 붕괴를 시작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작스런 환경 가운데서, 서구에서 들어온 기독교는 무너진 조선의 주체적 정신을 다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역대 조선 총독들의 식민정책 핵심은 기독교의 근절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예와 일본 귀신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통한 내선 일체화 정책으로 독립운동의 거점인 기독교를 해체하려는 것이 식민통치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1919년 31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절반이 넘는 16명이었으며, 함께 재판을 받았던 48명 중에는 22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100년 전에 신앙이 전파되어 성도 수가 가장 많았지만 단 한 명도 없었고, 불교인은 불과 2명이었습니다.

개화기부터 3.1만세운동, 6.25전쟁 등 대한민국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선도했던 서양의 선교사들의 활약상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기독교 선교사들은 당시 유교적으로 폐쇄된 한국의 사회 속에 들어가는 점층적으로 교육과 의료선교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6.25전

쟁 당시 구호활동부터 정전협상까지 다방면으로 활약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피신했지만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 땅을 지키며 한국 정부를 대신해 학교와 병원, 고아원 등을 세우고 정전 협상에서 통역자로도 활동했습니다.

현재 국내 손꼽히는 병원으로 인정받는 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은 조선 말기 1886년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시설입니다. 교수진은 모두 선교사들이었으며 예비슨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스크랜턴 선교사), 연세대학교 전신인 경신학교(언더우드 선교사), 배재학당(아펜젤러) 등 그 외 인프라 시설이 전무했던 우리나라에 기독교는 수많은 의료, 교육, 고아원 등의 자선사업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의 역할 중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한글 보급입니다. 1446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제정하고 반포한 이후 400년이 넘었어도 전 국민의 90%가 문맹자였던 때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한글 문법책을 만들고(최초의 문법책은 언더우드 선교사 집필) 교회에서 야학당을 개설하여 한글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보도 불럭위의 지렁이 한마리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립니다.

온갖 피조물들은 갈증을 해소하고

푸른 나무들과 작은 풀잎들은

묵음때를 씻어내며 웃어댁니다.

그렇게 연거푸 내려준 단비로

만물들은 무더위를 견뎌낼 힘이 생겼습니다.

비가 그치고 보도 불럭 희끗희끗 말라가는데

긴 지렁이 한 마리 꿈틀댁니다.

물기 찾아 어둔 집 제계 두고 소풍왔는가!

용케도 있을만한 곳을 찾아 몸을 가눕니다.

블럭 사이 사이에 물기는 아직도 있었다는 것

그 지렁이 하는짓 보고 알았습니다.

감사하며 막대기로 살살 굴려 화단 안쪽으로

지렁이를 밀어 넣으니 자기 죽이는가

완전 꼬부라져 난리입니다.

잠시 안정을 찾은 지렁이를 보며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땐 좋았겠지... 늘 그런 날 일출 알았겠지...

그러나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습한 땅속.

네가 살 수 있는 곳을 떠나면 안되는거란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산 결과가 죽음이잖아...

너는 네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인생들은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거지...

너를 보며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햇빛 찬란한 길 위에 버둥대는 지렁이 한마리
가만히 다가가 보니 곧 죽게 생겼다.
지렁이가 내 마음을 알겠나라는
영혼 없는 미물이라도 불쌍하긴 마찬가지.
살살 굴려 아파트 단지 넓고 축축한 화단 안으로...
지렁이 고향으로 보내주었다.

사설

성평등가족부 개편, 헌법·가정의 기초 흔든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개편 시도가 사회 각계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개편안은 단순한 부처 명칭의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가정의 근간, 교육과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먼저,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남녀 간의 평등을 뜻하는 '양성평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평등은 국제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물학적 성(性)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인식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남성, 여성 외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인간이 남성과 여성 두 성(性)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진리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양성의 평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도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하려던 시도가 공청회 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철회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젠더 이데올로기와 연계되어 정책의 방향성과 사회 인식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불과 10년 만에 동일한 논쟁을 다시 꺼내들고, 국민적 합의 없이 부처 명칭을 개편하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의 근본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현행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양성(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법의 친족과 상속, 가족관계 등록법, 건강보험법 등은 모두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왔고, 이는 수십 년 간 사회 질서를 유지해 온 법적 기반이었다. 그런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정부 부처 명칭에 공식적으로 도입할 경우, 이는 단지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정책, 교육과 행정 전반에 걸쳐 해석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로 지음 받았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 성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이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 정체성을 주관적 인식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교회와 가정을 넘어, 모든 사회 질서에 심

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단지 소수의 정치적 이념이나 세계적인 유행을 좇아, 오랜 시간 이어온 가정과 공동체의 기초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과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역시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를 막아야 하며, 향후 모든 관련 법령은 '양성평등' 개념에 기반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제정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마지막 방파제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시대를 분별하고 행동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국민은 이제 깨어 일어나, 혼란과 왜곡의 물결에 침묵하지 않고, 진리와 생명을 위한 거룩한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가 처음 생긴 것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로 '여성부'가 신설된다. 그리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부처의 문제점이 계속 노출됐다. 부처 역할 중복과 비효율성, 남성 역차별 논란, 정치적 논란 중심, 그리고 정책 실효성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내각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처에 소속된 형태다. 일부 국가인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여성 권리, 여성 권익에 대한 업무로 '여성권리부'나 '여성평등부'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예 '젠더'에 대한 평등을 실현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세계에 없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정부 각 부처에 업무를 할당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장관급의 '성평등가족부'를 두어서 국민 간 갈등의 요인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정부의 부처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국민들의 눈높이와 세계 각국의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는가?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 수 교 대 한
하나님의성회

제7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7월 4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4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엄 하 석
총 무 목사 오 세 준